

회 의 록

□ 회 의 명 : 2026년 7월 시청자위원회

□ 일 시 : 2026. 7. 23.(목) 11:00

□ 장 소 : GS칼텍스 예울마루

□ 출석위원 : 강문식 위원장, 조애숙 위원, 안인수 위원, 박소정 위원,
박경숙 위원, 김종은 위원, 박종일 위원, 박배연 위원,
천현진 위원, 김대희 위원, 최태민 위원(이상 11인)

□ 불참위원 : 천지연 위원, 이지호 위원, 이현규 위원(이상 3인)

□ 여수MBC : 대표이사 사장, 경영심의센터장, 방송사업센터장,
보도센터장, 콘텐츠센터 편성제작팀장(이상 5인)

2026년 7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발언내용

○ 위원장

무더위와 휴가철이 이어지는 7월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휴가철임에도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역 문화예술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미 있는 투어와 식사를 함께하며 위원님들과 교류할 수 있어 반가웠습니다. 오늘 자리를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GS칼텍스 김종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여러 현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 국립의대 문제 등 지역의 교육·의료 균형발전과 맞닿은 사안들이 지역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MBC가 이러한 현안을 균형 있게 살피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7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임 시청자위원 위촉장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여수YMCA 사무총장이신 김대희 위원님과 순천우리병원 병원장이신 최태민 위원님께서 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함께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촉장 전달은 이호인 여수MBC 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 위촉장 전달

위촉장. 여수YMCA 사무총장 김대희. 귀하를 여수MBC 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6년 7월 1일 여수문화방송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호인.

위촉장. 순천우리병원 병원장 최태민. 귀하를 여수MBC 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6년 7월 1일 여수문화방송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호인.

○ 위원장

두 분께서는 각각 청소년 분야와 의료 분야를 대표해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청자위원회 운영에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분의 인사 말씀을 간단히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대희 위원

반갑습니다. 여수YMCA 김대희입니다. 지역의 유일한 공영방송으로서, 또 전남 동부권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온 여수MBC 시청자위원회에 여러 선배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도 청소년 단체이자 YMCA의 일원으로서 여수MBC가 지역사회에 굳건한 공영방송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다음은 최태민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태민 위원

반갑습니다. 최태민입니다. 우선 위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임이셨던 박병현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청자위원회라고 해서 방송을 보면서 재미있었던 점 등을 편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지역 현안에 대한 진지한 말씀들이 많고, 회의 분위기도 생각보다 매우 진지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도 의사로서 의료계 일이나 지역 현안에 더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지한 마음으로 참석하겠습니다. 잘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수MBC 대표이사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대표이사

오늘 예울마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5년여 전에 여수MBC에 부임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예울마루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방명록을 남기라고 하셔서 처음으로 방명록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지역사회가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GS칼텍스에 큰 감사를 드린다”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이 네 번째쯤 방문인 것 같은데, 올 때마다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청자위원 두 분께서 새롭게 오셨습니다. 김대희 위원님은 이전에도 함께하신 경험이 있어 든든한 우군이자 건설적인 비판자로서 시청자위원회의 큰 역할을 해내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태민 위원님의 전임이셨던 박병현 위원님은 매우 남다른 분이셨습니다. 시청자위원으로서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셨고, 시청자위원회가 좋은 분위기로 운영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최태민 위원님께도 남다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제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현 콘텐츠 센터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콘텐츠센터장

콘텐츠센터장입니다. 7월 업무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집 프로그램 「금오도 비렁길」 후반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집 작업 중이며,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직전인 9월 방송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을 기준으로 여수세계섬박람회가 D-50을 맞았습니다. 이에 맞춰 여수MBC에서는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를 위해 채널버그와 흘림자막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로컬 프로그램 상단에 MBC 로고 아래 여수세계섬박람회 D-day 날짜를 표시해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막 때까지 열심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제16회를 맞는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도 열립니다. 현재 참가자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선은 9월 12일 토요일 공개홀에서, 본선은 9월 19일 토요일 여수 해양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가족, 동호회, 친구, 직장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니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8월에는 여수세계섬박람회 D-30을 전후해 섬 특집 시리즈를 특별 편성할 예정입니다. 8월 3일부터 여수MBC가 그동안 제작한 섬 관련 특집물과 목포MBC의 섬 관련 특집을 포함해 총 33편 내외를 아침 시간대에 연속 편성할 계획입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특집 「금오도 비렁길」이 마지막 편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전 회의 의견 반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선거 이후 당선인 공약 이행 및 지방권력 감시 보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라디오전망대」의 뉴스브리핑, 이슈체크, Y토론, 인터뷰, 로컬썰전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동부권 균형발전 관점의 보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라디오전망대」를 통해 국회의원 인터뷰, 정치한판, 토론, 취재기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특히 삼전닉스 전남광주 유치 속 동부권 소외 불안감, 순천대 의대 관련 이슈 등을 로컬썰전, 뉴스브리핑, 정치한판 등을 통해 다뤘습니다.

시청자 의견 및 방심위 조치사항입니다. 지난달에는 홈페이지에 「신나는 오후」 진행자 관련 민원이 한 건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흥을 높이기 위해 휘파람으로 추임새를 넣는 부분이 듣기에 거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원 내용을 제작진과 진행자에게 전달해 불편하지 않도록 진행을 요청했고 개선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치사항으로는 목포 제작 프로그램인 「어영차 바다야」에서 운전자 좌석 안전띠 미착용 장면이 노출되어 개선제도 조치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심의 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콘텐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어서 박광수 보도센터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보도센터장

보도센터의 지난달과 이달 주요 취재 내용 및 주요 보도 범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문제,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 민생경제, 폭염 등 기후문제 네 가지 범주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지난달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언과 의견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행정구역 통합 이후 청사 기능 배분 문제, 주청사 위치가 갖는 의미 등 동부 지역민들의 이해와 입장을 반영하려 노력했습니다. 지역 간 행정서비스 격차 문제, 전남 동부권 국립의대 유치 관련 지역의 목소리도 중점적으로 반영하려 했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해서는 행사장 공사가 빨리 마무리되어야 하는 만큼 공사 진척 상황을 살펴봤고, 손님맞이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인프라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도 보도에 반영하려 노력했습니다.

광양항 북극항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움직임이 있음에도 인수위나 행정당국에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다소 무관심한 부분이 있어 그 점을 부각하려 노력했습니다.

다음 달 주요 보도 운영 방향입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사전 부대행사 성격으로 제7회 섬의 날 행사가 8월 8일 열립니다. 시청자들이 잘 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도하겠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도 D-50을 지나 약 40여 일 남은 상태입니다. 준비 상황을 잘 살펴 취재하겠습니다.

통합 행정 체계 안착을 위한 정책 검증과 지역 현안 감시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시·도 행정당국이 민선 9기 체제를 갖춘 이후 후속 대책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교육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도 지난달 지역 학교 운동부의 깜깜이 회비 등 비리 의혹을 집중 취재한 바 있습니다. 경찰 수사도 이어진 만큼 추가 취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태풍 등 재난이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기후재난 대책과 지역 상권 상생 방안도 취재하겠습니다.

이전 회의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반영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동부권 지역의 이해와 입장이 반영되고 있는지 관련 보도를 통해 들여다보려 노력했습니다.

당선인 공약 이행과 지방권력 감시를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출발점이기 때문에 거칠게 비판하거나 파헤치기보다 인수위원회가 어떻게 시정 운영 구상과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려 노력했습니다. 6월 29일 여수, 7월 10일 순천, 7월 15일 광양 순서로 시장직 인수위의 시정 운영 구상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섬박람회 준비 상황도 다각도로 살폈습니다. 결국 섬박람회의 핵심은 행사장의 전 시뿐만 아니라 지역의 섬으로 관광객을 어떻게 유도하고, 실제 섬을 체험하게 하느냐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교통편, 즉 바닷길이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인프라 공사 준비 상황도 반영하려 노력했습니다.

산업·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과 관련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이 진행되는 부분 등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다음은 정용우 방송사업센터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방송사업센터장

사업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은 10월 말까지 여수 해양공원 일원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휴가철을 맞아 버스킹 공연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수시가 섬박람회를 앞두고 추가 공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공항과 KTX역 등 외지 방문객이 처음 접하는 공간에서도 낭만버스킹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지 고민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가능한 사업예산 범위 안에서 섬박람회와 연계해 공연을 기획 중입니다.

정채봉문학상은 이번 달 말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 달부터 심사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뮤지컬 「그날들」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연계 시장 상황이 특별히 좋은 편은 아니며, 티켓 파워가 있는 공연도 예매율이나 점유율이 예전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동으로 뮤지컬 「그날들」을 기획했습니다.

「그날들」은 김광석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뮤지컬에 활용하는 작품으로,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입니다. 긴박감과 스토리라인이 좋고, 배우들도 서울팀이 그대로 지역 투어에 참여합니다. 엄기준, 류수영, 최진혁 배우를 비롯해 우리 지역 출신 배우인 윤시윤 배우도 출연합니다. 잘 기획해서 준비하겠습니다.

8월 특이사항으로는 8월 15일 광복절 특집으로 낭만버스킹 특별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애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애숙 위원

반갑습니다. 새롭게 시청자위원으로 오신 최태민 위원님과 김대희 위원님을 환영합니다.

지역에서는 통합특별시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민들은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마음이 착잡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단체방에서 순천대와 목포대 의대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역민 중에는 쉽게 보면 “순천에는 대학병원, 목포에는 의과대학을 두면 무엇이 문제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의 거리가 너무 멍니다. 대학과 병원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교육과 진료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 자세한 내막을 보면 현재 논의가 목포대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지역에서도 반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은 의대 문제보다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항만공사 통합 문제입니다. 최근 부산·울산·인천·광양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국회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런데 광양항만공사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다 보니 자칫 더 큰 도시로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지역민들이 이 문제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과 인천 쪽에서 먼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우리 지역에서도 광양항만공사 통합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입니다. 4개 항만공사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규모가 작은 광양항이 피해를 볼 수 있고, 각 지역 항만의 역할이 다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다면 지역 맞춤형 항만 육성이 저해되고 지방분권과 자치도 약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수MBC가 이 문제의 배경과 문제점, 현장의 목소리를 보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문제입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형인 광주와 농촌형인 전남은 구조적으로 특수성이 다른데, 그런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도시 중심의 행정개편으로 진행될 경우 전남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서는 통합특별시의 시정 비전인 “압도적인 성장, 함께하는 특별시”를 두고, 우스갯소리처럼 “압도적인 후퇴, 분열하는 특별시”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통합이 되면 광주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시청자위원회에서도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많은 부분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상황입

니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통합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전남의 농어촌 경제와 주민 생활권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전남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적 대책이 통합 논의에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반 양측의 기계적인 전달을 넘어서, 지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상생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기획보도 형태로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MBC가 시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보듬어주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인수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안인수 위원

반갑습니다. 여수산단 사업개편 1호 승인 관련 보도가 여수MBC에서도 어제 보도됐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YNCC의 1·2·3공장 중 3공장은 가동 중단 상태이고, 2공장도 추가로 가동을 멈추며, 롯데와 합병하고 정부로부터 약 7천억 원 지원을 받아 좋은 회사로 바뀔 수 있을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보다 조금 다릅니다. YNCC와 롯데가 합치는 것은 초기 구상이고, YNCC와 롯데가 합치면서 일부 설비 가동을 중지하면 NCC 생산의 기초가 상당히 약해집니다. 에틸렌 기준으로 약 140만 톤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에틸렌을 사용하는 한화, 대림, 롯데가 다시 다운스트림 쪽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NCC 생산 규모를 줄인다고 이익이 창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국 다운스트림인 폴리머까지 포함해 사업개편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당초보다 그림이 커졌습니다. 에틸렌을 사용해 폴리머를 생산하는 한화의 경우 LD, LLD, HD, EV 공장까지 추가되고, 대림도 LLD, HD 등이 추가되어 상당히 큰 규모의 회사가 만들어지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7천억 원 지원설도 구체적인 출처는 모르겠습니다. 관계자에게 확인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여수산단 사업개편이 되면 정책, 세제, 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구체적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남광주통합시가 되면 2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선언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빅컴퍼니를 만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물론 잘 되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기존보다 조정할 수 있는 규모가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수 1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구조개편이 함께 나와야 합니다. 기업 자체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고용입니다. 3공장 인원이 그대로 남아 있고, NCC 2공장까지 가동 중단하면 또 인원이 발생합니다. 부족한 에틸렌 130만 톤을 목표로

관련 공장을 조정하면 그에 따른 고용 문제가 생깁니다. 또 회사가 섞이면서 인허가 문제, 원료 공급처 변경 문제 등 여러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통째로 회사가 넘어가면 쉬울 수 있지만, 폴리머 쪽만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중 약 35%를 분리해 새로운 사업개편 회사로 넘겨야 합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든 넘어가고 싶어 하는 분도 있지만 기존 회사에 남기를 원하는 분도 있어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구조개편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당초 약속했던 여러 지원책들이 계획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 막 시작된 단계이고, 일정도 당초 연말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며 내년 1분기나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시가 된 이후 동부권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부권 기존 산업인 여수산단과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수MBC가 지역 언론으로서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한 지원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소정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소정 위원

요즘 저는 8시 20분이면 영락없이 여수MBC 채널 앞에 앉게 됩니다. 8시 20분이라는 시간이 머리에 박히니 다른 일을 하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MBC를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보도가 굉장히 풍성해졌고, 문제점들도 적절하게 잘 찾아내고 있다고 느낍니다. 요즘 여수MBC 보도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갈구하는 통쾌함을 주는 MBC가 되면 더 사랑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는 칼날 같은 비판 없이는 언론의 생명력을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전남광주통합 이후 온통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마치 반도체가 들어오면 전남광주가 금방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들어오면서 생태문명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균형 있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학기술 문명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인문적 소양이나 사람의 근본적인 생태가 뒤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언론이 균형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통합시장을 비롯해 시장·군수들이 처음이라 그런지 모두 자화자찬식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긴 뒤에 비판하기보다, 미리 공약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지 챙겨 보완해 가도록 하는 언론의 날카로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 문제도 중요하지만 자꾸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전남광주 통합 교육 문제도 챙겨 언론의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위 백서와 관련해서도 여수 MBC가 문제점을 잘 짚어주셨고, 이런 보도를 통해 언론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쭙보고 싶습니다. 「섬마을 여행사」는 방송이 종료된 것입니까?

○ 콘텐츠센터장

올해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소정 위원

홈페이지 관리도 조금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놓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려 했는데, 7월 6일자 이후에는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없어진 것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또 「이슈앤토크」의 기획·연출이 김종태 보도 센터장으로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데스크 인터뷰에 들어가면 초기 화면에 2024년 6월 10일 노관규 시장 인터뷰가 그대로 뜹니다. 홈페이지가 최근 콘텐츠 중심으로 보이도록 관리되면 좋겠습니다.

「어바웃 우리동네」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는데, 요즘은 콘텐츠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새롭게 챙겨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요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언론에 요구만 하지 말고 도움도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수MBC가 통합 시대에 홀대받고 있는 전남 동부 지역을 지키는 방송이 되고, 우리 시청자위원들도 여수MBC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여수MBC에 어떻게 힘을 줄 것인지도 함께 고민하면서 시청자 위원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경숙 위원

오늘 회의 전 예울마루의 비전과 미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문화예술 에너지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창의적 아트 플랫폼”,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삶, 문화예술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라는 표현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늘 전시 관람 시간이 짧아 충분히 느끼지는 못했지만, 사람의 감정과 감각을 깨워 함께하는 삶, 더 나은 타인을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 경남MBC 진재운 PD가 만든 영화 「나무의 노래」를 봤습니다. 박소정 위원님이 상영회를 열심히 진행하셔서 순천에서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화면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자연과 연결되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섬은 사실 「나무의 노래」에 나오는 영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앞두고 사람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눈뜨고, 감각과 감동을 통해 자연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 갖게 하는 것이 이번 섬박람회의 흐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섬박람회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아름다움을 충분히 감각할 수 있는 영상이 제작되면 좋겠습니다. 나무의 노래처럼 아름답고 깊이 있는 섬 관련 영상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최근 순천에서 생태공론장을 진행했습니다. 9월 18일에는 강금실 전 장관을 초대해 생태법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공론장은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면 바다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누군가가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식입니다. 바다에 사는 생물, 어민, 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존재가 함께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생태공론장에 참여한 청소년과 청년들은 지구의 희망이 느껴진다,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 특히 자연의 목소리를 듣는 경험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와 영상 제작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바다를 이루고 있는 생명들의 이야기, 바다의 변화, 오염된 현실, 섬의 현재 상황 등이 사람들에게 잘 들릴 수 있도록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나무의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영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위원장

다음은 김종은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울마루에 대한 의미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종은 위원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울마루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기념해 지역의 공연장과 행사장으로 사용하자는 요구도 있어 2012년 5월 10일 개관했습니다. 당시 5월 12일에 여수세계박람회가 시작됐고, 국무총리 등 여러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공연장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1차 사업으로 예울마루, 2차 사업으로 장도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수 시에서 부지를 제공했고, 이후 GS칼텍스가 운영비를 포함해 약 1,500억 원 정도를 들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기업이 상생하며 협업해 운영하는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쉽게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상황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GS그룹과 쉘브론이 50대 50 합작 구조이다 보니, 예울마루 운영에 매년 40억~50억 원 정도의 사업비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외국 기업 입장에서 왜 지역사회에 이런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고, 여수MBC에서도 잘 보도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상생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경영 상황에 등락이 있고, 정유업계에 대한 정부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담합이나 폭리, 횡재세 등의 이야기가 있어 열심히 경영 활동을 하면서도 좋지 못한 이미지가 생기는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섬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채널버그 홍보가 좋았습니다. D-50부터 화면에 계속 나오니 여수MBC를 보는 사람들은 섬박람회가 얼마 남았는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만 섬박람회 콘텐츠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큼니다. 아직 전시장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기자단 팸투어도 있었지만, 전시 콘텐츠가 무엇인지, 박람회에 오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부각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지만, 통합이라는 말보다 소외, 그늘, 편향, 진통 같은 부정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은 상생이어야 합니다. 상생의 '상'은 서로 마주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무를 눈으로 자세히 보아야 상태를 알 수 있듯이, 서로를 제대로 보아야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시 관계자들이 동부권을 보지 않고 자기들만 내려가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여수MBC가 상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칠 수 있도록 비판적 시각을 갖고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일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종일 위원

민형배 시장님이 취임 이후 바로 다음 날 저희 회사에도 오셨는데, 그럼에도 동서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 알고리즘에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통합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능적 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광양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광양에는 광양읍과 동광양이 있는데, 사실 광양시는 단순히 15만 도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광양읍이 7만, 중마동이 7만 정도이고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광양읍은 오히려 순천과 가깝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행정기능을 안분하다 보니, 실제 불편은 시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동서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뒤에 있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수MBC가 잘 해결해 주리라 믿습니다.

○ 위원장

다음은 박배연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배연 위원

섬박람회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한 영화관에 갔더니 영화 상영 전에 섬박람회 홍보 영상이 나왔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굉장히 임박했음에도 실제 준비 상황이 체감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 행사장 앞을 지나갔는데 진척된 것이 많이 없어 보였습니다. 보도에는 행사장 공정률이 90%라고 나오는데 정말 90%가 맞는지 의아했습니다. 어떤 시설이 정리되었고, 앞으로 무엇이 더 필요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도 하나밖에 없어 보여 교통 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숙박시설 수급 문제, 여수시의 재정 지원 요청, 행사 이후 경제효과, 시설 사후 활용 문제 등 의문이 많습니다.

여수MBC가 준비 주체에 대한 감시자로서 진행 상황을 계속 심층적으로 보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수 시민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있는 만큼,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행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도 조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층적으로 잘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현진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천현진 위원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 논의와 관련해 협상이 결렬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수MBC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된 부분을 보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캠퍼스나 대학 간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과 관련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수MBC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보도에서 양 대학 부총장들이 만나 논의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화면에는 부총장이 아니라 이전 협의 단계의 총장들 자료 화면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폭염과 기후위기 보도입니다. 장마와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챙겨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취약계층 지원 시설,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 지역의 폭염·장마 피해, 예방 대책, 야외 노동자 안전수칙, 주민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정보 등이 함께 보도되면 더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방송 다큐 제작과 수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뉴욕 페스티벌 TV&Film 어워즈에서 MBC강원영동 이준호 기자가 연출한 「콩치풀이」가 수상한 바 있고, 원주MBC의 「능소화」도 같은 어워즈에서 수상했으며 휴스턴 국제영화제, 시카고 국제여성영화제에서도 수상했습니다.

지역방송 콘텐츠가 단순히 지역망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넘어, 뛰어난 제작 능력과 좋은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외에서도 입증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수MBC도 섬 관련 콘텐츠 등 좋은 기획과 연출로 다큐멘터리를 많이 제작해 오셨으니, 바쁘시겠지만 내부적으로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외 공모나 수상에도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다음은 김대희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대희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MBC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고 인수위원회 백서가 공개되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서부권과 동부권 사이의 교통 문제, 산업 재배치 문제, 기존 전통산업의 어려움, 제철과 산단 관련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도체와 20조 원 투자 등 광주 쪽 중심의 고민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인수위가 경제 문제, 동부권이 관심 있는 대학·교육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시리즈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순사건도 주요 내용에서 빠져 있고, 동부권이 꾸준히 요구해 온 철도·교통 변화, 경전선 문제 등도 생각보다 의견이 부족했습니다.

미래 신산업과 반도체 중심의 희망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시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여수MBC에서 보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태민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태민 위원

저는 이 지역이 원래 연고가 아니어서, 순천에 처음 온 것이 2018년입니다. 예울마루는 2019년에 처음 와봤는데, 당시 이렇게 좋은 문화예술 시설이 여수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놀랐습니다. 여수가 지방 도시인데 문화 수준이 높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까지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드립니다.

조애숙 위원님께서 의대 위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관련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목포에 의대를 두고 순천에 병원을 둔다는 안에 대해 동부권 지역민의 50% 정도가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대를 다니면서 경험한 바로는 의대 6년 중 마지막 1~2년만 병원에서 실습하는 것이 아니라, 예과와 기초의학을 배우는 4년 과정에서도 병원이 없거나 임상 교수들이 없으면 교육과 연구가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말로는 목포에 의대, 순천에 대학병원을 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대가 있는 곳에 병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병원이 없으면 기초과정과 예과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습니다.

지역민들은 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에 더 필요한 것은 병원이고, 병원이 순천에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대가 있는 곳에 진짜 대학병원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순천에 먼저 생긴 병원은 나중에는 종합병원 하나가 더 생기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동부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짜 대학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여수MBC가 이런 오해를 지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면 실제 여론을 정확히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목포MBC 뉴스를 보니 순천대학교와 관련해 ‘몽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지역뉴스라 해도 중립적인 입장이 필요한데, ‘몽니’라는 단어까지 써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같은 MBC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주의를 요청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너무 편파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두 분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 박소정 위원

뮤지컬 「그날들」은 혹시 GV도 진행하십니까?

○ 방송사업센터장

출연자와의 대화 같은 별도 GV는 없습니다.

○ 박소정 위원

또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여순사건 위령제가 진행되는데, 위령제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여순사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여수MBC가 그런 기획을 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 방송사업센터장

기념식은 전남도에서 매년 입찰을 진행하고, 지역 기획사가 수주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기념식 중계방송만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령제 전체 기념식은 공모사업으로 나오고, 저희는 그 안에서 중계방송을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 박소정 위원

제주 4·3과 비교하면 여순사건 위령제는 수준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순에 대한 이해가 있고 언론이 함께하면 더 의미 있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쭙본 것입니다.

○ 방송사업센터장

전남도 등 관련 내용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행정 균형과 균형발전이 이뤄지고 있는지, 지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소외와 갈등은 없는지, 최근 순천대 문제 등을 보며 여수MBC가 어떻게 지역을 대변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사측에서 답변이나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시청자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우려와 지역 정서는 여수MBC 구성원들이 충분히 스스로 느끼고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목소리와 정서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보도와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지역 이익을 위한 대변이 아니라 큰 틀에서 지역의 균형성장이라는 관점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논란이 되고 있고 협의가 진행 중인 의대 통합 문제의 경우,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자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수사로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되는 부분, 지역민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 정치적으로 지역이 정확히 대변되지 않은 부분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들을 중심에 두고 현업 부서에서 보도를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섬박람회입니다. 섬박람회는 지역의 가장 큰 이슈이고, 전국적인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김중은 위원님께서 콘텐츠가 무엇이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수 지역 정서는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공정률과 관련해서도 일회성·일회용 주 행사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앞으로 더 지

을 것이 많지 않아 90%로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축제가 잘 치러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점검해 가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섬 콘텐츠와 기능을 통해 섬박람회가 안전하고 충실하게,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센터장

특히 공적인 사안에 대해 ‘몽니’라는 표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을 다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안에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태민 위원님 말씀을 같은 MBC 입장에서라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기회가 되면 목포MBC에도 주의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 콘텐츠센터장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는 콘텐츠 전반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뉴스앤이슈」는 2주에 한 번씩 방송되다 보니 월요일 출근 후 업데이트를 놓치면 2주 분량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업데이트가 늦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월요일 아침마다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수MBC는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언론 매체입니다. 지역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은 위원님께는 오늘 자리 준비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GS칼텍스 회의실을 보면서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이 AI와 연결되어 있고 플랫폼 하나로도 많은 변화가 생기는 환경입니다. 여수MBC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수MBC가 미래지향적으로, 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6년 7월 여수MBC 시청자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